

남북 관계 해빙기에 변화하는 '한반도 보건망'

# 보건지원 제약사 '방긋' vs 핵 대신 '결핵 구멍' 우려

수액·백신생산 제약사 기대감 ↑  
'남북경협 수혜 테마주' 주가 올라  
北 결핵환자 세계 1위, 감염 지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보건당국이 대북 보건 지원 준비에 나서면서 제약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일부 보건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가 결핵에 노출되는 등 보건 관리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제약업계는 '미소'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9일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북한에서 시급한 질병의 의약품 보급부터 제약시설 건립, 보건소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당국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자 제약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한 제약사 관계자는 13일 "이번 남북 해빙 무드로 전염병 백신 지원, 약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국군위장대 사열을 마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건립 착수, 주사제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 시약, 치료제 제공 및 실태조사 자료 교환 등 과거에 진행했던 의료 지원이 재개될 것 같다"며 "지난 10.4 남북 정상회담을 뒤돌아보면 수액 및 백신 등의 필수약품과 생산시설 설립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녹십자는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조선광명성총회사와 합작·설립한 유로키나제 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에는 녹십자에서 파견된 기술진과 북한 측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으며, 혈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유로키나제를 생산해 국내에

반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의약품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북한의 생산 인프라 구축에 국내 제약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런 흐름 속에 GC녹십자와 JW중외 제약, 조아제약 등은 이른바 '남북경협 수혜 테마주'로 불리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초수액 및 영양수액, 백신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 제약사들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경협에...한반도 건강 비상?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보건 안전망에는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국제 보건전문가들은 북한의 결핵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대한 결핵 퇴치사업을 다음 달 말 중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결핵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남북교류를 앞둔 시점에 남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북한 결핵 환자가 남한에 온다든지 혹은 남한 인사들이 북한 가서 활동하게 될 경우에 결핵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계의 중론이다.

북한은 법정전염병인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5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 결핵 환자가 6000명에 육박해 '핵보다 결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대북 의료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는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임영진 회장은 "가장 우선으로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과 의료협력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래전부

터 북한 의료지원에 참여해왔던 세브란스 병원을 중심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향에 대해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업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물자 지원을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 공동 연구 등 협력과 협업을 중점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정부 차원의 모든 의료 지원이 단절된 상황이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북한 신의주 지역의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 수해 지역과 북한 주민 의료지원 사업 등 목적으로 비영리단체인 민족사랑나눔을 중심으로 93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 차원의 대북 의료지원은 전무했다.

게다가 UN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의 압박 등 제재 국면이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은 열악한 보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높은 영아 사망률에서 북한 보건 의료분야의 열악한 인프라가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4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 남한의 6배를 넘는다.

/유재희기자 ryusoul1@metroseoul.co.kr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목표(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목표	지표명	2008	2013년	2020년	사업명
근로자의 육체적 기초건강 증진을 통한 뇌·심혈관 질환자수 감소	남성 근로자의 현재 흡연율	51.70	45.60	30	가) 사업장 건강 증진 운동 활성화
	남성 근로자의 고위험음주율	26.80	21.20	20	
	근로자의 고혈압 유병률	21.80	22.90	21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	근로자의 비만 (25kg/m <sup>2</sup> 이상) 유병률	30.30	31.70	30	나)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사망률	3.60	2.30	3	
	근로자의 우울증상 경험률	11.30	7.40	7.00	

\*단위: % /자료=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스트레스 등 직장인 건강 '빨간불'

직장인 30% '스트레스' 호소  
보험연구원 "안전보건 강화 넘어  
근로자 질병예방 위한 정책 필요"

최근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업종의 증가, 근로자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장인 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광물, 건설, 제조업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시행된 사업장 보건의 패러다임을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과 안소영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최근 산업구조가 제조업, 건설업 등 3차산업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4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감정노동,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 등으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직장인이 근무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 비율은 남성이 26.5%, 여성이 25.4%로 집계됐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도 질병을 야기했다. 남성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일반 성인남성보다 좋지 않았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성인남성 대비 흡연율과 음주율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임근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높은 빈도로 발생했다.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중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작업 관련성 질환은 약 77%로 집계됐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그동안 각 산업 사업장은 광물이나 건설, 제조업 등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다만 최근 들어 서비스업종이 증가하고 산업형태가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에서도 종업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인 건강은 보험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 계층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직장인의 건강증진은 건강리스크의 증가에 대응한 보험금 지급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돌아온 '큰 손 썬커'에 숨통 트인 유통가

(중국인 개별관광객)

중 관광객 1년 만에 증가세 전환  
썬커 구매력 높아 객단가도 상승  
유통업계 중 관광객 마케팅 활발



랄라블라 명동중앙점에서 중국인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사드 해빙 분위기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중국인 개별관광객(썬커) 유입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 지역도 증가하면서 향후 단체관광객(유커) 깃발 부대도 빠른 시일안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결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스토어 랄라블라(구 왓슨스)가 지난 4월부터 5월 7일까지 은련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명동 지역 매출은 33% 증가한 반면 개별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동대문 지역의 랄라블라 점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34%, 241%나 급증했다 유커 대신 썬커의 유입이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개별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내국세 즉시 환급서비스의 이용 금액 역시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다. 홍대 점포의 경우 노동절 연휴(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기간 동안 전주대비 47%의 신장을 보였다.

랄라블라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 홍보물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별도 매대로 구성하여 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면세점 오픈을 앞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도 중국 개별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중국 노동절 연휴에 발생한 중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5% 신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고객 매출 신장률(41.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썬커가 많이 찾는 무역센터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 신장률은 174.1%에 달했다.

실제 무역센터점은 구매력이 높은 이른바 큰 손 썬커들이 늘어나면서 객단가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절 기간 무역센터점을 방문한 중국인 고객수는 지난해 대비 48.4% 신장한 반면 객단가는 7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1.7%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구매 단가가 큰 해외패션(142.3%), 럭셔리시계(92.7%) 등의 매출 호조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장품(80.6%)과 식품(61.3%)의 매출 신장률보다 2배 가량 높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상

무)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무역센터점 일대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큰 손 썬커들이 몰리면서 지난해보다 더욱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공항과 도심, 관광지에 널리 편의점에서 중국 개별관광객들의 소비가 늘었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U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은련카드·알리페이의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5% 증가했다.

CU 관계자는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조짐을 감지하는 바로 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커들의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한 중국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늘어난 40만3000명이다.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유진 기자 ujn6326@